‘서울 세모녀 자살사건’ 계기 긴급복지제도 관심 높아가는데…

몰라서 못잡는 위기 가정의 ‘구명줄’

광주 각 구청들 홍보 미흡에 소극적 지원
불용예산 늘고 혜택 못받는 대상자 많아

#1 광주에 사는 김모(39)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A모텔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저체온증에 따른 동사(凍死)로 추정된다. 5~6년 전 집을 나온 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생활을 해온 김씨는 최근 낙향한 뒤 광주지역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생활해 왔다.

노숙자인 김씨는 따로 수입이 없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만약 김씨가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더라면 김씨는 매달 생계비 88만원씩 최대 6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주부 정모(여·39)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주 소득자인 남편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수입이 끊기게 되자 북구청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정씨에겐 3살~11살까지 네 명의 자녀가 있었다. 금융재산은 300만 원 미만, 총 재산은 1억3000만 미만이었다.

정씨는 곧장 구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북구청은 금융재산 등을 감안해 매달 128만 원(5인 기준)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한숨 돌린 정씨는 식당 일을 하면서 위기 탈출을 꿈꾸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집세·공과금 70만 원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각 구청이 운영하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구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3일 광주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긴급지원 신청자 중 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모두 9371건(지원금 70억9000만원)으로 지난 2012년 3670건(〃 55억9000만원)보다 155.3%(5701건) 늘었다.

해마다 지원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편성액도 늘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불용예산은 38억3000만 원으로 지난 2012년 9900만 원보다 무려 37배(37억31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국비 보조금(80%·시비 10%·구비 10%)이 애초 예산보다 16억 가량 증액 지원된데다, 문턱이 높아서다.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은 적극 발굴과 선지원 후처리다. 그야말로 ‘긴급’ 상황이므로 지원을 먼저 하고 한 달 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출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일정액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1촌 직계혈족이 있을 경우 지원자격 박탈)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조사기간이 길어져 긴급지원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서는 점도 문제다. 김씨처럼 노숙자의 경우 지원 대상을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으로 한정한데다, 보호시설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실직자 또는 휴·폐업을 한 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년 연속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작 자신이 이 제도 대상자이면서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대상자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중한 질병·가출·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광주 5개 구청 지원 규모

2012년 3670건(지원금 55억9000만원)

2013년 9371건(지원금 70억9000만원)

■광주 불용예산

9000만원 〈2012년〉 ➡ 38억 3000만원 〈2013년〉

■불용예산 많은 이유

• 국비 16억원 증액된데다 문턱 높아

• 구청 소극적이고 조사기간도 길어

업자에 뒷돈 받은 국회의원 비서관 체포

급식자재 배송업체 선정 관련
수천만원 수뢰혐의 포착

국회의원 비서관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3일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A의원 비서관 B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남구 지역 학교 급식자재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 B씨가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 경우 지난달 구에서 운영하는 학교 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배송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업체 두 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업체 중 B씨에게 돈을 준 의혹을 받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송업체로 선정되면 급식센터가 생산자들로부터 사들인 농산물과 일부 가공품을 남구 지역 56개 초·중·고교에 배송·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민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세요

안행부 24일까지 부착 추진

안전행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인다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6·4 지방선거 등을 할 때 신분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서 경영난 30대 횟집 주인 자살

수산물 판매 급감에
수개월간 영업 못해

경영난을 겪던 30대 횟집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원산지 허위 표시 수산물 및 우이산호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수산물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빚어진 일이다.

3일 오후 3시 10분께 여수시 돌산읍 J 횟집에서 최모(3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 주변에서는 태운 흔적이 있는 번개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부모와 함께 건물을 빌려 횟집을 운영해오다 2~3개월 전부터 경영난을 겪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횟집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 했다는 최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최근 수산물 판매가 급감,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는가 하면, 소비 촉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서 급발진 추정 사망

3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공장 주차장 외벽에 김모(50)씨의 승용차가 돌진해 김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딸(22)·아들(19)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내를 기다리며 주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씨의 차량이 갑자기 120m 가량 돌진하다가 벽에 부딪힌 사실을 확인하고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양세열기자 hot@

면사무소 계약직이 빈집털이

나주경찰은 3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면사무소 계약직 근로자 A(32)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나주시 일대 빈집에 들어가 1천400만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장애 3급인 A씨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해 지난해 12월부터 면사무소 복지 도우미로 일했으며 근무 중 점심 시간을 이용해 빈집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친구가 쫓겨난 원룸에 몰래 들어가 한달간 ‘도둑살이’

쌍나팔

○… 친구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원룸에 몰래 들어가 한 달간 도둑살이(?)를 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16·광주 모 중학교 3년)군 등 3명은 지난 1월 초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이모(38)씨의 A원룸에 몰래 들어가 한 달 간 ‘공짜로’ 머물렀다는 것.

○…경찰에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박군 등은 조사 과정에서 “친구가 방값을 못 내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찾아가 살았다”고 진술, 주거 침입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돼 입건.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 (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 21개(1층 상가 2칸, 룸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레비이터 완비, 최고위치 공사완료 고급주택, 정남향
(상가 원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 입니다.)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융 3억, 보 1억)

★수완지구상가(수익형,확실보장)★

매매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융 2억)
	3층상가(85평) 모아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융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융 1억5천)
임대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아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융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융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융 1,500만)
·원투룸 임대 즉시입주가 풀옵션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주)대신종합건설개발 ☎010-6670-9800/ 062)952-598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뒷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쇼핑거리
154평 (매가 8억5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옷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급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옥,학원,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선에 월500선 9억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건물 대지 1924㎡(582) 건물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감정 47억3천 은행 18억 매도 26억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은행 26억 가능 매도 36억3천

임대 • 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화순군 능주면 관리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답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남평읍 오계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투자, 매월동 매월저수지옆 경관좋음 빌라, 다세대 적합 자연녹지 5485㎡(1659) 매도 31억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500에 40선에 임대 1층 가게 22평은 전체나 분할해서 임대가능함 임대조건은 타협가능함
◦ 장성읍 그린벨트산 4만평 3억 8천만원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종 주거지 674㎡(316)다가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삼각동 2종 주거지 618㎡(187)원룸 적합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쌍촌동 광송간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계림동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융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55㎡ 매 12억(보 1.3억, 월600만 유명 프렌차이즈 입점)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대지/전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잡종지 6,300㎡ 매매 50억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39억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